

인물화에서 찾아본 한국인 성인여자 쌍꺼풀의 빈도 및 형태: 대한민국 미술대전 1982, 1990, 2001년도 분석

서민성·황 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The author attempted to analyze the upper eyelids of 30 faces of Korean women's portraits which were awarded at 1st, 9th and 20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held in 2001, 1990, and 1982.

In 1982, 36% of eyelid were double fold. The incidence increased to 47% in 1990. In 2001, 97% of eyelids were double fold. Among them, 67% were infold, and 33% were outfold. Only 14% of eyelids had epicanthal fold. Fourteen % were high fold, remainders were low or medium height.

We may consider that the ideal eyelid nowadays in Korea is a double fold with low or medium height, with infold, without epicanthal fold.

Double Fold found in Portraits of Korean Women: Analysis of 2001, 1990, 1982 Grand Art Exhibitions of Korea

Min Sung Seo, M.D.,
Kun Hwang, M.D., Ph.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College of
Medicine,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Address Correspondence : Kun Hwang, M.D.,
Ph.D., Associate Professor, Inha University
Hospital, 7-206 Shinheung-Dong, Choong-Gu,
Inchon 400-711, Korea. Tel: (032) 890-3514,
Fax: (032) 890-2918, E-mail: jokerhg@inha.ac.kr

Key Words: Double fold, Eyelid, Beauty, Portrait

I. 서 론

우리나라 미술작품에 나오는 얼굴의 형태나 표정에는 한국인의 심성이나 마음상태가 사실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한국인이 지향하는 바 이상형의 얼굴이 반영되기도 한다.¹ 18세기 후반 근대미술의 시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전에는 종교적 이상형으로서의 얼굴이 그려졌던 것에 비하여, 사실적 표현의 경향이 강해져서, 미인도와 인물화가 그려지게 되었다. 미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눈을 중심으로 보면 근대 들어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생활양식도 변화해서 밝은 표정을 보이는 쌍꺼풀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졌다.²

사진작가가 인물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은 모델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데 비해서, 화가가 인물화를 그릴 때에는 꼭 그대로 그리지는 않으며, 작가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다르게 그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눈구석 주름(epicanthal fold)이 있는 모델을, 없는 것으로 그릴 수

도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화가는 자신이 마음 속에 그리고자하는 이상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인물화에 나타난 눈꺼풀의 형태, 특히 쌍꺼풀의 유무와 높이, 눈구석주름의 유무에서 우리 시대의 이상적인 눈꺼풀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이하 국전) 입선작 중 인물화의 눈꺼풀을 분석하고, 1982년과 1990년과 비교하여 현대 우리나라 성인여자의 이상적인 눈꺼풀이 어떤 형태인지 알아보는데 있다.

II. 재료 및 방법

가. 재 료

2001년도 제20회 국전 278점의 입선작 중 한국화 및 양화로서 얼굴이 실물크기 이상으로 그려졌으며, 정면 혹은 사면으로 그려진 그림 중 눈을 뜨고 있어서 눈꺼풀을 관찰할 수 있는 31개 성인 여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 1982년도 제1회 및 1990년도 제9회 국전 한

국화 및 양화 입선작 중 2001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식별 가능한 성인여자의 얼굴 12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나. 방 법

2001년도 그림의 얼굴은 실제 작품을 관찰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얼굴 부분을 근접 촬영한 후 분석하여, 쌍꺼풀 유무, 안주름(infold) 혹은 바깥주름(outfold) 여부, 눈구석주름(epicanthal fold) 유무, 쌍꺼풀이 있는 경우 그 높이에 따른 분류 등을 분석하였다. 1982년과 1990년도 그림의 얼굴은 도록을 확대경으로 관찰하여 쌍꺼풀의 유무를 분석하였다.^{3,4}

III. 결 과

가. 2001년도 국전에서의 눈꺼풀

30개 얼굴 중 29례(97%)에서 쌍꺼풀이 있었다. 그중 높은주름(high fold)이 4례(14%), 중간주름(medium fold)이 16례(55%), 낮은주름(low fold)이 9례(31%)로서, 86%가 높지 않은 쌍꺼풀이었다. 구별 가능한 27례 중 18례(67%)에서 안주름(infold)이었으며 바깥주름(outfold)은 9례(33%)에 불과하였다. 식별가능한 28례 중 눈구석주름이 없는 경우가 25례(86%)였으며, 있는 경우는 4례(14%) 밖에 되지 않았다(Fig. 1).

나. 1990년도 국전에서의 눈꺼풀

그림의 15개 얼굴 중 쌍꺼풀이 7례(47%), 홀꺼풀이 8례(53%)였다. 조형을 포함하면 18개 얼굴 중 쌍꺼풀이 9례(50%), 홀꺼풀도 9례(50%)였다.

다. 1982년도 국전에서의 눈꺼풀

그림의 11개 얼굴 중 쌍꺼풀이 4례(36%), 홀꺼풀이 7례(64%)였다. 조형을 포함하면 12개 얼굴 중 쌍꺼풀이 4례(33%), 홀꺼풀이 8례(67%)였다.

라. 연도별 변화

1982년에 36%이던 쌍꺼풀의 빈도가 1990년에는 47%로, 2001년에는 97%로 증가되었다. 조형을 포함한 경우 1982년에 33%가 1990년에 67% 2002년에 97%로 증가하였다(Fig. 2).

위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 성인여성의 이상적인 눈꺼풀은 그리 높지 않은, 눈구석 주름이 없는, 안쪽주름을 가진 쌍꺼풀로 생각된다(Fig. 3). 이러한 눈의 선호경향은 다분히 서구적 미인관의 영향이며, 미술작품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큰 눈에 대한 동경과, 눈이 동그란데서 오는 순박함과 아동적 앳됨을 지향하는 성향으로 풀이된다.⁵

미술작품을 조망해보면 현재의 한국인의 모습, 혹은 삶의 표정을 작품 속에서 되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다. 한국미술은 끊임없이 외래문화의 수용과 변화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전통성을 획득하였다. 미인관도 역시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고유 문화

IV. 고 찰

와 외래 문화가 상호 교류, 수용되면서 부단히 변모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⁶ 조선시대의 인물화, 특히 미인도들을 관찰해 보면 모두 흘꺼풀이며 눈꺼풀 폭(palpebral fissure)이 좁은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Fig. 4) 이 시대의 미인은 여성스럽게 작은 체구에 앵두 같은 입술에 은행 같은 눈을 가진 여자라고 전해져 온다. 이 은행 같은 눈은 까기전의 은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흘꺼풀의 눈이었다. 비교적 근래인 1982년 인물화에는 36%에서 관찰되었던 쌍꺼풀이, 1990년에는 47%로, 2001년에는 97%로 증가한 것을 보면 최근, 특히 약 10여년 전부터 쌍꺼풀 선호도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화가들이 누드를 그릴 때는 몸 전체의 균형과 비율에 더 신경을 쓰게되나, 옷을 입고 있는 인물화를 그릴 때에는 얼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실제 모델은 흘꺼풀인데 쌍꺼풀이 있는 것으로 그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 눈구석주름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그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한다. 결과에서 보인 눈구석 주름의 빈도 14% 보다 모델들이 실제로 눈구석주름을 가지는 빈도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계측한 결과 황건 등은 81%에서 눈구석 주름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그림 모델이 되려면 쌍꺼풀은 있어야하지만 눈구석 주름이 꼭 없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V. 결 론

2001년도 국전 인물화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 성인여자의 이상적인 눈꺼풀은 그리 높지 않은, 눈구석 주름이 없는, 안쪽 주름을 가진 쌍꺼풀이다.

REFERENCES

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인의 얼굴. 서울, 도서출판 신유, 1994, p 17
2. 박대환: 동양인 안검 미용수술의 술전평가. 박대환, 백봉수: 안성형외과학, 서울, 군자출판사, 1999, p 163
3. 한국미술협회: 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도록. 서울, 고려출판 1982
4. 한국미술협회: 제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도록. 서울, 고려출판 1990
5. 조용진: 미술작품을 통하여 본 안면미관. 함기선, 유재덕: 심포지엄 안면부 미용성형외과 수술, 서울, 안전보건자료사, 1975, p 7
6. 이 준: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한국인의 상. 호암미술관,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서울, 1999, p 224

7. 황 건: 한국인 성인 눈사이거리에 관한 형태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3: 9, 1994